

섬유산업, 2007년 재도약 원년으로

경세호 회장, 한-미 FTA 협상 마무리 주력 ... 국산 인증마크도 도입

경세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1월9일 “2007년 한해는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하강곡선을 그려온 섬유·패션 산업이 재도약해 상승곡면으로 반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세호 회장은 1월9일 대치동 섬유·패션센터 빌딩에서 열린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조속 마무리 등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2007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특히, EU(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진전을 위해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공정 수입품 난입을 막아 국내시장 안정을 확보하는 데 진력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 소재로 만든 섬유제품과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제도를 조속히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섬유특별법 관철 의지를 거듭 밝히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와 제도 정비 주력 ▲산·학·연 협동 등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전개 ▲패션 디자인과 산업용 섬유 등 미래 전략사업 육성도 각각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0>